

외로운 홀로서기 청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다



서울에 위치한 사단법인 일과복지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보호종료아동 맞춤형 자립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자립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선배 멘토가 자립 노하우를 발표하는 모습.

자립준비청년들이 아동보호시설 퇴소 후 부딪혀야 하는 현실은 가혹하다. 가족의 울타리에서 성장한 청년도 독립할 시기가 되면 막막한데, 자립준비청년들은 주위의 도움 없이 홀로 자립해야하기 때문이다.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이유가 보통 가정 폭력이나 학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퇴소 후에 그 관계가 개선될 리는 만무하다. 그러다 보니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크고 작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을 열고 연락할 사람이 거의 없다. 사단법인 일과복지는 적극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여 일대일 맞춤형 자립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보호종료아동 맞춤형 자립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했다.

“오랫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을 많이 접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자립준비청년이 고졸 이하이고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에 그치며 보통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어릴 적 폭력과 학대로 인해 경계

선 지능장애에 놓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회성 지원으로는 일시적으로 상황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고려한 일대일 맞춤형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사단법인 일과복지 권상철 사무총장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필요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온 마음을 다해

이혜경 본부장은 청년들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일대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상담을 통해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상자에 맞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나갔다. 대면지원과 전화통화, 화상채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계 형성에 힘썼다. 전은경 팀장은 1년 동안 20명의 청년들과 수시로 연락을 나누며 동고동락했다.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고심했던 적도 있었지만 어느새 시시콜콜한 안부까지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보호시설을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정서적 지지 체계나 자립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모, 형제 같은 가족이 되어 미래를 같이 고민해줘야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힘들 때도 있었지만 청년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과 위로도 함께 얻었습니다. 취업해서 보답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말을 들을 때면 이번 사업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청년들과 관계를 형성한 후에는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립을 위한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란 김은미(가명) 씨는 자립을 하고 나니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지만, 좌절하기보다는 공무원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하루에 4~5시간 남짓 자면서 공부에 매진했다. 김은미 씨가 시험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산재단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학원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공무원 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다.

마음과 몸의 건강을 회복해 세상 밖으로

진로 탐색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연희(가명) 씨는 아동보호시설 퇴소 후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어두운 방에서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연희 씨의 안부를 묻는 사람도 없었고,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사단법인 일과복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 상담을 연계하며 이연희 씨가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심각한 우울증과 무기력증, 대인기피증 등을 앓고 있던 이연희 씨는 사업에 참여하며 점차 삶에 대한 의욕을 되찾기 시작했다. 지금은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하고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시험을 준비하며 사회로 나올 채비를 하고 있다.

이연희 씨처럼 사회적인 고립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자립한 선배 멘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선배 멘토들은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똑같이 겪어봤기 때문에 공감을 바탕으로 진심어린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이는 빗장처럼 굳게 닫힌 대상자들의 마음을 여는 데 큰 힘을 발휘한다. 주우진(가명) 씨는 선배 멘토로 활동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따듯한 충고도 아끼지 않는다.

“아동보호시설을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궁금한 점이 많은데, 제가 이미 경험해봤던 문제들이기



자립준비청년들을 돕기 위해 자립 전문 사례관리사와 전문가들이 협업하고 있다.

때문에 설득력 있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을 단단하게 붙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때로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주우진 씨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존중해주는 사회적 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자립준비 청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전은경 팀장은 여러 사례를 검토하면서 사업의 연속성과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의 사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상자의 사례를 일반, 집중, 위기관리 3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서비스를 지원하면 한정된 자원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와 같은 자립 전문 사례관리사와 선배 멘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세분화하면 더 빠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담 인력과 선배 멘토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지역사회의 도움을 연계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통해 사회적인 부모와 형제가 되는 일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립 전문 사례 관리사와 선배 멘토, 여기에 전문가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고 자립준비청년의 여정을 도약인다면 분명 희망의 꽃이 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사단법인 일과복지는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하게 성장해 사회에서 튼튼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오래도록 그 곁에 함께할 것이다. 글 권주희 작가